

성서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인간 실존 관련 단어들에 대한 비교 연구

- ὕβρις, ἁμαρτία, θάνατος, φόβος를 중심으로 -

박형철*

1. 서론

“해석을 보자면 30,000개나 되는 다른 해석이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밴후저(K. Vanhoozer)가 자신의 저서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를 시작하며 인용하는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의 말이다. 그는 키에르케고르의 “연애 편지”와 “왕의 칙령” 비유담을 예로 들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텍스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지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그 안을 들여다보며 순종하고 이해를 추구하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유한다.¹⁾ 성서 이해에 대한 밴후저의 균형감각은 다양한 성서해석 방법론에서 나타나는데, 텍스트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지만 성서에 흐르는 구속사를 ‘드라마 이론’으로 조망함으로써 말씀을 통감각적으로 수용하는 창의성과 포용력은 주목할 만하다.²⁾ 성서 번역과 해석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러한 균형과 포용력이다. 전통적인 성서학에서 시대와 장소 속에 위치하는 텍스트의 근본성(rootedness)에 치중하다가 역사적 접근의 한계를 경험했다면, 현대 성서학은 현대 시대와 장소라는 정황(context) 속에서 텍스트의 본질과 핵심은 놓치지 않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번

*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테크노·아트·미디어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act_s@daum.net.

- 1) K.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김재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23-25 참조.
- 2)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Theology*에서 밴후저는 텍스트를 중요시하지만 그 텍스트를 더 풍성하게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구속사를 드라마 이론으로 조망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이 있으며 그의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와 밴후저의 이론을 비교한 연구로는 박형철,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과 케빈 밴후저(Kevin J. Vanhoozer)의 드라마 이론에 나타나는 구원론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9 (2012), 165-188가 있다.

역과 해석의 건강한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³⁾

본고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성서와 그리스 비극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지향하는 바가 그러한 소통과 확장이다. 미학과 미디어의 시대에 문학과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매체들을 통해 성서를 좀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는 교회의 신학과 신앙에 소중한 기여가 될 것이다. 나아가 본고가 융복합의 시대에 성서학을 비롯한 신학이 일반 인문학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이나마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고는 먼저 2장에서 성서와 그리스 비극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비교연구가 성서 번역과 해석에 있어 어떠한 의미와 유익을 주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장에서 성서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네 개의 단어들(휘브리스[ὑβρις]-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타나토스[θάνατος]-포보스[φόβος])을 중심으로 인간 실존에 대해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성서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어떻게 사랑과 구원의 카타르시스를 지향할 수 있을지 제안한다. 본고의 이러한 탐구과정이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다양한 의미와 내용의 행간을 읽어냄으로써 성서 내용에 대한 풍성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성서와 그리스 비극의 상호텍스트성: 번역과 해석지평의 확장

모든 인간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삶을 영위해간다. 그리고 세상과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그 이야기에 의존한다.⁴⁾ 성서와 신화를 소재로 한 비극문학은 그런 이야기들 중 오래전부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해져 온 ‘큰 이야기’(또는 거대서사, grand narrative)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구전을 통해 나중에는 글을 통해 전승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성서는 많은 사본들을 통해, 신화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부분적인 조각들의 차이와 상관없이 두 이야기가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데, 인간 존재의 근원, 신과 인간의 관계, 죄와 벌, 세상 속 인간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 실존

3) A. C. Thiselton, 『성경해석학 개론』, 김동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42-48, 86-90.

4) C. G. Bartholomew and M. W. Goheen, 『성경은 드라마다』, 김명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14, 24.

속 고통의 문제 등이 그 핵심주제들이다. 성서와 그리스 비극의 비교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 두 이야기가 이처럼 종교성과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재와 실존에 대한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들뿐만 아니라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같은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비교연구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높여준다.

사실 이러한 내용과 언어의 유사성 때문에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한 성서와 그리스 비극의 비교연구가 많을 것 같지만 학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⁵⁾ 성서의 메시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성서 번역에서도 영화 같은 영상예술과 매체 그리고 포스트모던적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들과 상호보완적 가치교환을 시도하려 노력하는 현 시대에 그리스 비극을 성서와 함께 연구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원 본문과 두 번째 본문 사이의 과정이 번역’이라고 제안하고 ‘번역의 범주가 훨씬 더 커지고 더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신약성서와 70인역과 마찬가지로 헬라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스 비극만큼 성서와 가까운 두 번째 본문은 없다.⁶⁾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서와 신화 속 많은 이야기들이 유명한 영화의 장면처럼 서로 겹쳐서(overlapped) 떠오른다는 것 또한 양자 간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의사소통이 매우 용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성서와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 비극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휘브리스’(ἕβρις),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 ‘타나토스’(θάνατος), ‘포보스’(φόβος), 네 개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실존과 구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번역과 해석의 확장을 시도한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들이 고대의 성서와 신화에서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서양고전들 그리고 근현대와 포스트모던 문학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인간의 모습을 서술할 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먼저 본고는 인간이 성서의 기준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비극의 정의에서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존재’라는 데서 출발한다. 나아가 성서와 비극에서 정의하는 이러한 인간의 실존 상황에 원

5)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성서와 비극의 비교연구로는 정용택, “비극과 구원을 변주하는 새로운 신학의 내러티브를 위하여”, 『제3시대』 19 (2011), 15-22; 이종철, “바울의 로마 황제 내러티브와 버질 『아이네이스(Aeneid)』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신약논단』 19:4 (2012), 1103-1140; 이두희, “누가-행전에 나타난 역사기술 문체에 관한 연구 :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를 중심으로”, 『성서학연구원저널』 60 (2009), 11-20.

6) 필립 노스, “성서에 있어 번역의 개척자들과 매체: 예술과 동시대 매체를 통한 청중 끌어들이기”, 정창욱 역, 『성경원문연구』 20 (2007), 251; 양재훈, “예술 매체를 통한 성서 메시지 전달과 성서 번역의 과제”, 『성경원문연구』 23 (2008), 146-171.

인과 결과의 상황을 포함시켜 네 단어를 통해 인간의 실존 상태를 재구성함으로써 그 전후와 행간의 상황을 새롭게 고찰한다. 네 단어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이러한 비교연구는 창조에서 종말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구속의 드라마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인간의 존재와 실존이 함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번역과 해석에의 시도가 될 것이다.⁷⁾

3. 성서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인간 실존의 상태: ‘휘브리스(ὑβρις)-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타나토스(θάνατος)-포보스(φόβος)’의 도식

3.1. 휘브리스(ὑβρις)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

세상 속 인간 실존의 상태는 고통에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타락 이후 인간은 노동과 임신이라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한 번 태어난 인간은 한 번의 죽음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 실존의 한계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또는 신)과 같아지려했던 인간의 휘브리스(ὑβρις)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에서 비롯되는데 두 단어는 성서와 그리스 비극 속에서 기본적으로 죽음(θάνατος)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먼저 휘브리스(ὑβρις)는 ‘교만’으로 번역되는데 역사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를 탐욕과 함께 가장 큰 악으로 여겼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교만이라는 유혹을 불어넣고 인간은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탐욕을 품게 된다.⁸⁾ 문제는 호기심에서 출발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탐욕을 품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행동을 통해 치명적 실수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선과 악을 비롯해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교만과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판도라처럼 상자를 열게 만들었으며 이는 인간을 죄로 번역되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의 상태에 빠

7) 새로운 내러티브 번역을 제안하는 연구로는 신우철, “창세기 아브라함/야곱 내러티브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1:별책 (2012), 7-19. 특별히 비극을 통해 구속의 드라마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안하는 연구로는 문영빈, 박형철, “비극을 통해 새롭게 조망하는 구원의 드라마: 하마르티아(hamartia)를 중심으로”, 『신학연구』 62 (2013), 65-97.

8)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6)

지게 만들었다.⁹⁾ 모든 것을 가졌던 인간은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하나님같이 되려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열매를 선택하는 휘브리스(ὑβρις)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를 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성서에서 휘브리스(ὑβρις)는 하나님에게 대항할 정도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나타내는 휘브리스테스(ὑβριστής, 롬 1:30; 딤후 1:13)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자신을 나타내려는 사람을 나타내는 휘페데파노스(ὑπερήφανος, 잠 3:34; 눅 1:51; 롬 1:30; 딤후 3:2; 약 4:6; 벰전 5:5)와 함께 사용된다.¹⁰⁾ 그리고 각 구절 전후를 통해 그 의미는,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을 부인하는 말세의 모습(딤후 3:1-5),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악과 불의를 행함으로써 사형에 해당하는 모습(롬 1:28-32) 그리고 하나님이 물리치고, 홀고, 내리치고, 미워하며, 대적하는 모습(눅 1:51-52; 롬 1:30; 약 4:6)이자 모든 죄의 극치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휘브리스(ὑβρις)의 의미들을 종합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휘브리스(ὑβρις)를 품었던 인간의 마음을 좀 더 살필 수 있는데, 인간은 첫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며, 둘째 그렇게 높아진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사실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성서 속 다른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문학 속에 많이 나타난다. 홍수 이후 흠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고자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 진시황을 비롯해 영생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신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담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신』(2011)과 신이 되려 하는 인간에 대해 과학과 인문학을 통해 역사를 아우르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2015)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다양하게 드러내준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 중 아이스킬로스(Aeschylus)의 비극 『페르시아인들』은 크세르크세스 왕의 교만과 탐욕을 통해 휘브리스(ὑβρις)로 인한 비극의 전형을 보여주며 창세기 속 인간의 타락 이야기와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페르시아는 올보스(ολβος)-코로스(κόρος)-휘브리스(ὑβρις)-아테(ἄτη)의 도식 속 순서를 거치며 멸망해 가는데 그 중심에는 부와 번영의 지속을 위해 과도한 탐욕과 교만을 부리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있

9) ‘모든 선물을 받은/지닌’(all-gifted/giving)이라는 이름의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만든 인류 최초의 여자이다. 흠으로 만들어진 그녀는 호기심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불행, 질병, 고통 그리고 하나의 희망이 들어있는 항아리(흔히 ‘판도라의 상자’로 알려진)를 여는 우를 범한다. 판도라는 열매 외에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 있었음에도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처한 인간의 모습이다.

10) 박창환, 『성서헬라어사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419, 422 참조. 본고는 헬라어 사전에 나타난 단어의 분류를 각각의 단어가 포함된 본문내용의 전후문맥을 살핍으로써 그 의미에 따라 재구성한다.

다.¹¹⁾ 그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불경한 교만함을 저지름으로써 세상 질서의 파괴와 시민들의 죽음을 초래한다. 여기서 페르시아의 올보스(ολβος)와 코로스(κόρος)의 상태가 크세르크세스 왕의 휘브리스(ὑβρις)를 통해 아테(ἄτη)로 넘어가는 정황은 에덴동산의 뱀과 인간의 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ολβος) 동산 중앙의 열매에 대한 과도한 탐욕(κόρος)을 부림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는(ὑβρις) 우를 범한다. 이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즉 세상의 창조 질서와 영원한 생명이 파괴됨으로써 인간은 고통과 죽음이라는 실존 속에 처하게 된 것이다¹²⁾.

휘브리스(ὑβρις)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함께 죽음의 원인이 되지만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행위의 과정 중 휘브리스(ὑβρις)는 최초의 원인이 되고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행함을 통한 인간의 결과적 실존 상태가 된다. 즉 인간은 뱀과 같은 교만을 품고 그것을 행위로 옮김으로써 죄를 지은 것이다.¹³⁾ 사실 휘브리스(ὑβρις)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의 교차사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성서와 비극에서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이다.¹⁴⁾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성서에서는 구원과 연관되는 존재적 죽음의 원인으로 사용되며 비극에서는 주인공이 지님으로써 비극이 비극 되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사용된다.¹⁵⁾ 중요한 것은 성서와 비극에 다르게 나타나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의 의미이다. 원래 ‘과녁을 빗나간 상태’라는 의미의 헬라어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성서

- 11) 크세르크세스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πλεονεξία) 때문에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 (crossing over into the divine boundary). 이두희, “역사가들의 전쟁기술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 문제: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오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37 (2009), 51-52 참조.
- 12) 톨킨(J. R. R. Tolkien)은 이를 기독교적 세계관과 탁월한 상상력으로 만든 창조신화인 『실마릴리온』 속에서 설명한다. 일루바타르는 하나의 위대한 노래로 세상을 창조한다. 하지만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난 요정이었던 멜코르는 불협화음으로 그 음악의 질서를 깨고, 그 속에서 아르다(Arda)라는 인간의 중간계(실존)가 생겨난다. J. R. R. Tolkien and C. R. Tolkien, 『실마릴리온』, 김보원 역 (서울: 씨앗을뿌리는사람, 2004) 참조.
- 13) 물론 휘브리스(ὑβρις)를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죄에 대한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선택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순간을 휘브리스(ὑβρις)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뱀과 그 휘브리스(ὑβρις)의 근원 등 악의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 14) 진중권은 인간이 불행해지는 두 가지 방식이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와 휘브리스(ὑβρις)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 비극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실수’에 가까운 것이며 오히려 그 고의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휘브리스(ὑβρις)가 ‘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반문한다. 진중권, 『미학 에세이』 (서울: 씨네21북스, 2013), 18-27; 그리고 성서는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고 말한다.
- 15) Aristoteles, 『시학』, 천병희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2), 78-79.

에서는 ‘죄’(sin)로, 비극에서는 ‘비극적 실수/결함’(tragic error/flow)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먼저 성서에서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죄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주로 로마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격화된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 또는 ‘인격화된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롬 5:12, 21; 6:17, 23; 7:17, 20; 갈 3:22; 고후 5:21).¹⁶⁾ 또한 요한복음에서 단수로 사용되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특정한 죄보다는 일반적인 죄의 의미 또는 세상과 인간 실존의 죄악 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요한 문학에서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가 진리에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요 9:41; 15:24; 19:11; 요일 1:8). 히브리서에서는 죄가 사람을 속이고, 파멸로 인도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며 죄의 세력과 행동은 제사를 통해서만 끝난다(히 3:13; 5:1, 3; 10:2, 18).¹⁷⁾ 죄로서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로는, 범죄와 범행 그리고 죄의 의미로 모두 사용되는 하마르테마(ἁμάρτημα, 롬 5:16; 막 3:29; 고전 6:18; 벧후 1:9), 실수와 범죄 그리고 죄의 의미로 모두 사용되는 파랍토마(παράπτωμα, 마 6:15; 막 11:25; 롬 5:15; 갈 6:1), 율법을 다루는 본문에서 범 죄의 의미로 사용되는 파라바시스(παράβασις, 롬 4:15; 5:14; 히 2:2; 갈 3:19; 딤후 2:14), 범법과 행악을 나타내는 파라노미아(παρانونομία, 벧후 2:16), 불법적 행위인 아노미아(ἀνομία, 마 7:23; 롬 6:19; 딤후 2:14), 의와 진리의 대칭으로서 잘못함과 불의와 부정의 개념인 아디키아(ἀδικία, 요 7:18; 행 8:33; 고후 12:13; 히 1:9; 8:12), 무지로 인해 지은 죄인 아그노에마(ἀγνόημα, 히 9:7), 그리고 들으려하지 않는 상태와 불순종을 나타내는 파라코에(παρακοή, 롬 5:19; 고후 10:6; 히 2:2)가 있다. 이러한 비교와 종합을 통해 파악되는 성서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유혹하여 탐욕과 교만을 품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고 이후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하는 인격이자 세력이다.¹⁸⁾ 이는 첫째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의 행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를 죄인 그리고 죽음이라는 실존의 상태에 두었다는 것, 둘째 세상의 실존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회적 법과 질서에 반하는 불법적/반윤리적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의 행위를 범함으로써 파멸의 삶을 걸어간다는 것을 함의한다. 결국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로 인해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된 인간은 스스로 존재적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실존의

16) 홍인규, “로마서 안에 나타난 하마르티아”, 『신약연구』 3 (2004), 144-145.

17) Ibid., 144; 박창환, 『성서헬라어사전』, 16.

18)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와 뱀을 동일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홍인규, “로마서 안에 나타난 하마르티아”, 148-149, 160 참조.

삶 속에서도 은혜 없이는 윤리적인 면을 포함하는 성화의 구원 또한 이루어갈 수 없게 되었다.

성서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가 구원과 연관되는 존재적 죽음의 원인인 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비극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합당치 않게 벌을 받는 비극적 영웅이 범하는 중대한 실수나 결함, 잘못된 태도와 행동, 오판, 과오, 사고, 지식 결여, 덕스럽지 못함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¹⁹⁾ 즉 비극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성서적 원죄나 범죄의 의미가 아니며 훌륭한 비극이 되기 위한 플롯의 구성 중 주인공의 운명을 급전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플롯과 주인공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주인공의 운명의 원인이 비행에 있어서는 안 되고 중대한 과실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²⁰⁾ 이러한 비극적 영웅들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에서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의 목숨과 트로이 원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아가멤논 왕과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안티고네』에서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의 매장 여부를 놓고 클레온 왕과 갈등하는 안티고네는 결정하기 어려운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비극적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²¹⁾ 또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신탁의 저주를 피하려는 오이디푸스 왕의 시도와 노력이 오히려 그 저주를 완성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보여준다.²²⁾ 그리스 비극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의 의미사용은 셰익스피어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그의 대표적인 비극 『햄릿』에서는 햄릿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연인 오펀리아, 어머니 거트루드, 숙부 클로디어스 그리고 본인까지 죽음에 이르며, 『오셀로』에서는 오셀로의 열등감과 질투심 그리고 단순성과 멍청함으로 인해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이고 본인은 자살한다.²³⁾ 결국 비극적 영웅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를 범함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에 대한 내용은 성서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 그리고 인간의 실존과

19) 이용관, “『햄릿』에서의 셰익스피어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유산: 죽음, 내세, 연극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비평』 46:3 (2010), 567-586.

20) Aristoteles, 『시학』, 78-79.

21) 김해룡, “『안티고네』: 떠도는 지혜와 이르지 못한 함-안티고네의 하마르티아(hamartia)에 대한 변명”, 『고전르네상스영문학』 18:2 (2009), 27-53 참조.

22) Aeschylus, Sophocles, and Euripides, 『그리스 비극 걸작선』,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0), 165-234.

23) W. Shakespeare, 『햄릿』, 김정환 역 (서울: 아침이슬, 2008); 『오셀로』, 김정환 역 (서울: 아침이슬, 2008) 참조.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성서에서 죄로서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와 함께 사용되는 아그노에마(ἀγνόημα)와 파랍토마(παράπτωμα) 그리고 파라코에(παρακοή)가 지니는 또 다른 의미들은 비극 주인공들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데, 아그노에마(ἀγνόημα)와 파랍토마(παράπτωμα)는 무지로 인한 잘못과 실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파라코에(παρακοή)는 주변의 이야기나 마음의 옳은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²⁴⁾ 즉 비극 주인공들처럼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었지만 무지와 치명적 실수로서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를 저지름으로써 죄인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며 결국은 비극 주인공들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말은 한 사람의 휘브리스(ὑβρις)로 인해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라는 실존의 상태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⁵⁾

3.2. 타나토스(θάνατος)와 포보스(φόβος)

세상에서 인간의 실존은 죽음으로 끝난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며 성서와 비극은 이것이 인간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로 말미암는 결과라고 말한다. 인간은 죽음으로 번역되는 타나토스(θάνατος)라는 극한 실존 앞에서 포보스(φόβος)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두려움, 공포, 경외로 번역될 수 있다. 결국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상태는 존재적으로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 아래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포보스(φόβος) 아래 처해 있는 것이며 타나토스(θάνατος)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성서는 ‘죄의 값은 사망’(롬 6:23)이라고 말하며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와 타나토스(θάνατος)의 직접적인 원인 결과 관계를 진술한다.²⁶⁾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는 로마서 5:12의 진술과 연결되며(롬 5:12), 에덴동산에서 한 인간의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로 인해 주어진 타나토스(θάνατος)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존재적

24)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고 본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 주인공들이 있다. 허황된 예언에 현혹된 맥베스, 질투에 눈이 먼 오셀로, 점성술에 의지하는 쉘리의 발렌슈타인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25)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26)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물론 성서에서 타나토스(θάνατος)는 본문의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형벌로서의 죽음인 사형(guilt of death)을 언급할 때(마 26:66; 막 14:64; 눅 23:15; 행 13:28), 영적인 죽음을 말할 때(요 8:51; 롬 7:10), 그리고 예수와 관련되어 그의 성육신에서 십자가 죽음까지의 과정(빌 2:8),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히 5:7), 성찬에서 기념하는 주의 죽음(고전 11:26), 예수가 생명을 드러내며 폐한 죽음(딤후 1:10; 히 2:14) 그리고 화목제물로서의 예수 죽음의 의미(롬 5:10)를 말할 때 사용된다.²⁸⁾ 또한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처럼 인격과 세력으로 나타낼 때는 인격화된 사망과 음부(hell)로서(계 1:18; 6:8; 20:13), 아담 이후 왕노릇하는 사망으로서(롬 5:14, 16; 6:9; 고전 15:26)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인데, 타나토스(θάνατος)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로 말미암는 존재적 죽음이자(롬 5:12; 고전 15:21; 고후 1:10) 영원한 죽음이며(롬 1:32)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고후 7:19).²⁹⁾ 또한 성서에서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로는 잠이 있는데 나사로와 스테반 그리고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 사용되는 휘프노스(ὑπνος, 요 11:13)와 코이메시스(κοίμησις, 마 27:52; 요 11:11; 행 7:60; 고전 7:39; 15:20; 살전 4:13)는 타나토스(θάνατος)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된다.³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타나토스(θάνατος)와 휘프노스(ὑπνος)의 관계가 그리스 신화에서 밤의 신 닉스의 쌍둥이 형제인 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잠의 신 휘프노스로 나온다는 것이다.³¹⁾ 성서에서 사망과 음부 즉 타나토스(θάνατος)와 하데스(ᾅδης)(고전 15:55; 계 6:8; 20:13)가 함께 인격화되어 사용되는 것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하계의 신 하데스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 시지푸스의 에피소드를 떠오르게 한다.³²⁾ 에우리피데스(Euripides)의 『알케스티스』에서 타나토스(θάνατος)는

27)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10)

29) 박창환, 『성서헬라어사전』, 200 참조.

30) Ibid., 243, 423. 나사로에게는 ‘잠’에 대한 두 단어가 모두 사용된다. 죽음과 잠에 대한 히브리 문화와 그 원어인 타르테마, 휘프노스에 관한 연구로는 김선중, “깊은 잠(타르테마)의 신학적, 상징적 의미”, 『성경원문연구』 36 (2015), 99-115 참조.

31) Hesiodos, 『신통기』, 천병희 역 (서울: 한길사, 2004), 38-40, 248-250 참조.

32) 타나토스(θάνατος)는 인간에게 할당된 수명이 다 되면 그 사람의 머리털을 잘라 하계의 신 하데스에게 갖다 주고 인간을 데리고 간다. 시지푸스는 타나토스(θάνατος)와 하데스를 속여 영원히 큰 돌을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다.

죽음 앞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생명에 집착하는 인간의 악하고 이기적인 내면을 꿰뚫어보며 아폴론에게 반박하는 지혜로운 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대신하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죽으려는 알케스티스의 희생까지 받아들이는 아드메토스에 대해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인간들은 고통에도 자신의 죽음을 팔고 타인의 죽음을 사려고 할 것이며, 이는 왕과 같이 ‘가진 자’의 특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³³⁾

사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근본적이면서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지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비극에서도 인간 실존의 결말이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휘브리스(ῥβρις)와 하마르티아(ἀμαρτία) 같은 죽음의 원인과 죽음의 결과에 대한 관객으로서의 인간의 반응인 포보스(φόβος)를 주로 다룬다.³⁴⁾ 즉 이는 본고가 인간 실존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처럼, 실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죽음보다는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적 실존의 상태를 다루며 그 극복을 시도하는 비극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나토스(θάνατος)는 그런 의미에서 하마르티아(ἀμαρτία)라는 태초의 인간의 ‘존재적’ 실존 상태에서 포보스(φόβος)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감정적’ 실존 상태를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 타나토스(θάνατος)가 성서와 그리스 신화에서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비극적 실존에 대해 중요한 모티프가 된다는 것은 프로이트(S. Freud)의 에로스와 타나토스(θάνατος)에 대한 연구와 이 이론을 차용하는 많은 문학작품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본능을 성적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구분하는 에로스와 타나토스(θάνατος)의 원리는 인간의 종족보존 본능과 파괴를 통한 무기물로의 회귀 본능을 말하며 이는 일차적으로는 대립의 양상을 보이지만 때로는 서로 중화되거나 뒤바뀌기도 하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여 주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이를 수면 상태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모두를 나타내는 현상이 될 수 있으며 사랑이 증오로 또는 증오가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³⁵⁾ 그리고 이러한 에로스와 타나토스(θάνατος)의 대립과 상호보완성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존재적, 심리적, 사회적 상황에 처한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삶과 죽음 사이의 희비

33) Euripides, 『에우리피데스 비극』, 천병희 역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174-176.

34) 비극의 기본 흐름은 주인공의 하마르티아(ἀμαρτία)로 인한 죽음에 대해 관객들이 포보스(φόβος)와 엘레오스(ἔλεος)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다. Aristoteles, 『시학』, 78-79.

35) S. Freud, C. S. Hall, and R. Osborn, 『프로이트 심리학 해설』, 설명환 역 (서울: 선영사, 1993), 154-157.

극(tragi-comedy)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상태를 보여준다.³⁶⁾

타나토스(θάνατος)라는 죽음의 실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비극은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과 죽음을 통해 관객의 포보스(φόβος, 두려움)와 엘레오스(ἔλεος, 연민)를 유도한다. 포보스(φόβος)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의미로 쓰이지만, 인간은 죽음 외에도 삶과 생명 그리고 숭고와 경외의 대상에서 포보스(φόβος)를 느낀다. 이에 성서에서 포보스(φόβος)는 두려움이란 번역을 기본으로 낱어에 따라 무서움, 놀람, 공포, 경외, 존경의 의미로 사용된다.³⁷⁾ 포보스(φόβος)에 대한 용례를 분류해보면, 무서운 감정으로서의 일반적 두려움(마 1:26; 롬 8:15; 고후 7:11; 빌 2:12), 사회적/종교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요 9:22; 행 16:38; 롬 13:3; 갈 2:12; 히 11:23)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존재, 기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마 17:6; 막 5:33; 눅 1:50; 행 10:35; 롬 3:18; 고후 5:11; 엡 6:5; 벧전 1:17; 2:17; 3:2)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³⁸⁾ 중요한 것은 인간이 느끼는 이러한 포보스(φόβος)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그리고 어떤 낱어의 의미로 느끼는 감정이든지 기본적으로 타나토스(θάνατος)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서 속 구원과 사망이 대조되어 함께 다루어지는 본문(롬 8:15; 고후 7:11; 빌 2:12)에서 인간은 죽음의 실존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왕의 명령에 불복한 모세의 부모는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맞선 것이며(히 11:23), 고침을 받은 맹인의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당하는 출교의 위협 속에서 사회적/종교적 소외와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한 것이다(요 9:22). 그 밖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경외심 또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두려움이 처음 나타난 것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첫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를 저지른 직후 아담의 반응에서이다. 숨어있는 자신을 찾는 하나님에게 그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라고 말하는데, 이 때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를 저지른 아담과 모든 인간에게 타나토스(θάνατος)의 결말이 예정된 것이며 삶 속에서 그에 따른 포보

36) 박정미, “『타나토스 증후군』과 위키 퍼시의 생태학적 관심”, 『현대영미소설』 7:1 (2000), 66-81; 정호영, “『체털리 부인의 연인』에 나타난 에로스과 타나토스의 대립 양상”, 『영어영문학연구』 31:3 (2005), 57-68; 김창준,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나타난 로고스, 에로스, 타나토스”, 『세계문학비교연구』 17 (2006), 227-253.

37) 포보스(φόβος)의 의미를 놀람, 위협, 공포/무서움(terror), 경계, 경외/두려움(reverence), 존경(respect)으로 정리하고 포보스(φόβος)가 ‘공포/무서움’ 또는 ‘경외/두려움’으로 번역되는 본문들을 비교한 연구로는 정창욱,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5 (2004), 195-217.

38) 박창환, 『성서헬라어사전』, 431.

스(φόβος)의 실존 상태(fear of death)에 처하게 된 것이다.³⁹⁾

그리스 비극 중 관객에게 타나토스(θάνατος)와 포보스(φόβος)를 가장 잘 전달하는 작품으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있다.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그리고 그들의 아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 속에서 관객들은 예언과 신탁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는 영아 살해 시도와 유기, 근친상간, 친부 살해 그리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이오카스테와 오이디푸스가 자살과 자해를 선택하는 마지막 장면까지를 바라보며 인간의 가혹한 운명과 실존에 대한 엄청난 포보스(φόβος)를 느낀다. 이러한 끔찍한 실존과 죽음에 대한 내용은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스 삼부작(oresteia)>에도 근친상간, 형제 살해, 친모 살해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는 아들 펠롭스를 삶아 올림포스 열두 신을 대접하는 프리기아의 왕 탄탈로스가 있다.⁴⁰⁾ 중요한 것은 신들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탄탈로스와 그 가족들을 비롯한 비극 인물들의 죽음과 멸망 그리고 탄탈로스에게 기갈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내린 제우스에게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실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다. 인간은 비극 속 인물들처럼 절대자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절망한다. 그리고 그 절망과 공포로서 포보스(φόβος)의 실존은 인간의 삶을 타나토스(θάνατος) 이상의 고통에 처하게 한다. 예를 들어 톨스토이의 『악마』의 주인공 예브게니가 현실 상황과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느끼는 극한 불안과 공포는 죽음 이상의 것이다. 자신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악마적인 힘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자살을 선택한다.⁴¹⁾ 인간 삶이 비극적인 이유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 때문에 포보스(φόβος)라는 또 다른 타나토스(θάνατος)의 실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탄탈로스와 제우스의 관계와 비교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절대자와 죽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인간의 태도이다. 신들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탄탈로스가 제우스로부터 벌을 받는 내용은 아들을 죽이라 명령했던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대비된다. 아들의 죽음을 이용해 신들을 이기려 했던 탄탈로스의 멸망을 보고 관객들이 비극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 우리는 아들의 목숨이 걸린 공포

39) 성서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 3:10이며 70인역은 이를 ‘포보스(φόβος)’로 번역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서의 두려움의 유사어로는 ‘데일리아’(δειλία, 딘후 1:7)와 ‘올라베이아’(εὐλάβεια, 히 12:28)가 있다. 박창환, 『성서헬라이어사전』, 83, 183.

40) Aeschylus, 『오레스테이아』, 두행숙 역 (서울: 열린책들, 2012), 299-317.

41) 조혜경, “기억, 상상, 이성의 비극: 톨스토이의 『악마』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24:1 (2012), 163-167.

와 절망의 순간, 순종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이긴 아브라함을 통해 성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⁴²⁾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을 타나토스(θάνατος)와 포보스(φόβος)의 절망적 실존에 빠뜨린 아담과는 반대로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타나토스(θάνατος)로 타나토스(θάνατος)와 포보스(φόβος)를 극복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⁴³⁾

4. 결론: 실존으로부터 구원으로서의 카타르시스

본고는 지금까지 인간의 삶과 죽음과 관련해 성서와 그리스 비극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창조 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인간의 실존 상태를 살펴보았다. 이는 “창조된 이후 죄를 지어 타락했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두려움의 실존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처지를 “휘브리스(ὑβρις) -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 - 타나토스(θάνατος) - 포보스(φόβος)”라는 단어들의 연결 도식을 통해 새롭게 조망해보는 과정이었다. 먼저 아담의 교만(ὑβρις)과 원죄(ἁμαρτία)로 말미암은 인간의 죽음(θάνατος)과 두려움(φόβος)의 실존에 대해 필자는 로마서의 두 구절을 모티프로 삼았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ὑβρις) 죄(ἁμαρτία)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θάνατος)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ἁμαρτία/φόβος)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또한 비극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휘브리스[ὑβρις]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로 말미암아 죽음(θάνατος)에 이르며 이는 두려움(φόβος)과 연민(ἔλεος)을 환기시킴으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유발한다”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에 대한 정의에서 출발하였다.⁴⁴⁾ 성서와 그리스 비극 속의 네 단어를 통한 비교 연구를

42)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현은 암복 나무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이스라엘로 인정받은 야곱(창 32:24-32)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냈다는 의미이다.

43) ‘죄와 죽음으로 인한 인간 실존의 비극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극을 통해 극복된다.’ 김선태, “발타살의 역사관: 신화와 철학과 종교의 관계”, 『가톨릭 신학과 사상』 61 (2008), 79-82; Hans Urs von Balthasar,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 1, G. Harrison, tran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2), 397-408; Hans Urs von Balthasar, *Theo-Drama*, Vol. II, 36-38; Hans Urs von Balthasar, *Theo-Drama*, Vol. IV, 171-222 참조.

44)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관련 문구에 휘브리스(ὑβρις)는 등장하지 않는다. 비극작품 속 휘브리스(ὑβρις)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의 교차사용에 대해서는 3.1.에서 언급했으며, 여기에서는 네 단어의 비교 정리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삽입하였다.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실수와 결핍을 이미 지니고 있는 부족한 존재이며 세상의 실존 가운데 유한한 생명과 불안한 감정을 지닌 채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과정은 그러한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혀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비극은 카타르시스를 통한 감정의 정화를, 성서는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증을 제시하는데 둘의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는 본고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는 다른 단어들 각각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더불어 과제로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비교연구를 통해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과 더불어 단어들의 번역과 해석에 대한 대화의 가능성이 열렸듯이, 카타르시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해의 폭 또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을 통한 카타르시스의 추구를 강조한 것에 대해 헤겔과 니체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헤겔은 연민과 공포에 의한 카타르시스보다는 ‘화해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니체는 비극을 통해 ‘삶에의 의지’가 고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⁴⁵⁾ 즉, 그들은 인간이 실존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화해의 감정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영혼이 통합과 균형을 통해 평안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극한 실존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살아야 하기에 의지로 버텨냄으로써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감정 정화를 넘어 영혼과 실존 속에서 구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성서가 말하는 존재적 구원은 믿음과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처럼 희비극이 펼쳐지는 복합시공간(complex time-space)으로서의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와 평안 그리고 구원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과 구원하는 아름다움을 통해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지향할 수 있을지 성서와의 비교연구와 대화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⁴⁶⁾

45) 김해룡, “『안티고네』: 떠도는 지혜와 이르지 못한 함-안티고네의 하마르티아(hamartia)에 대한 변명”, 28; 심재민, “니체의 아리스토텔레스 비판과 비극론”, 『드라마연구』 35 (2011), 241-244.

46) 브레히트의 『억척 어멈과 그 자식들』에서 억척 어멈은 전쟁과 자식들의 죽음이라는 극한 실존을 ‘삶을 선택하는 의지와 용기’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박형철,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의 신적-드라마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15), 173-176. 이 논문은 세상을 희비극이 펼쳐지는 복합시공간이라고 전제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는 아름다움을 통해 세상과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논의가 시작되었던 비극의 정의와 성서 구절로 돌아가 사랑과 구원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정리하고자 한다.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감정의 표출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존재적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은 비극작품 속 인간을 통해 느끼는 연민(ἔλεος)의 감정과 카타르시스를 통해 근본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다. 엘레오스(ἔλεος)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향해 베푸신 사랑의 의미인 자비(mercy)와 긍휼(compassion)로 번역될 때 그 가치를 더하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랑은 말씀으로 확증 받을 때 죽음을 이기고 존재적 구원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⁴⁷⁾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 5:8)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평안을 누린다. 또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는 말씀 속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1-22)는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게 된다. 즉 인간은 비극 속 죽음과 공포 앞에서 감정적 해소의 카타르시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죽음과 공포를 극복한 것처럼 말씀과 믿음을 통해 실존으로부터 구원의 카타르시스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비극, 인간 실존, 상호텍스트성, 휘브리스(ὑβρις)와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 타나토스(θάνατος)와 포보스(φόβος).

Tragedy, human existence, intertextuality, *hubris* and *hamartia*, *thanatos* and *phobos*.

(투고 일자: 2016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16년 2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3월 25일)

47) 박창환, 『성서헬라어사전』, 144 참조.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김선중, “깊은 잠(타르테마)의 신학적, 상징적 의미”, 『성경원문연구』 36 (2015), 99-115.
- 김창준,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나타난 로고스, 에로스, 타나토스”, 『세계문학비교연구』 17 (2006), 227-253.
- 김해룡, “『안티고네』: 떠도는 지혜와 이르지 못한 합-안티고네의 하마르티아(hamartia)에 대한 변명”, 『고전르네상스영문학』 18:2 (2009), 27-53.
- 문영빈, 박형철, “비극을 통해 새롭게 조망하는 구원의 드라마: 하마르티아(hamartia)를 중심으로”, 『신학연구』 62 (2013), 65-97.
- 박정미, “『타나토스 증후군』과 위커 퍼시의 생태학적 관심”, 『현대영미소설』 7:1 (2000), 66-81.
- 박창환, 『성서헬라이어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 박형철,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 한스 우르스폰 발타살의 신적-드라마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15.
- 박형철,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과 케빈 밴후저(Kevin J. Vanhoozer)의 드라마 이론에 나타나는 구원론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9 (2012), 165-188.
- 신우철, “창세기 아브라함/야곱 내러티브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1:별책 (2012), 7-19.
- 심재민, “니체의 아리스토텔레스 비판과 비극론”, 『드라마연구』 35 (2011), 241-269.
- 양재훈, “예술 매체를 통한 성서 메시지 전달과 성서 번역의 과제”, 『성경원문연구』 23 (2008), 146-171.
- 에우리피데스, 『에우리피데스 비극』, 천병희 역,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 이두희, “역사가들의 전쟁기술에 나타난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 문체: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할리카르나소서의 디오니시오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37 (2009), 47-76.
- 이두희, “누가-행전에 나타난 역사기술 문체에 관한 연구: ‘비극적 역사(Tragic History)’를 중심으로”, 『성서학 연구원 저널』 60 (2009), 11-20.
- 이용관, “『햄릿』에서의 셰익스피어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유산: 죽음, 내세, 연극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비평』 46:3 (2010), 567-586.
- 이종철, “바울의 로마 향해 내러티브와 버질의 『아이네이스(Aeneid)』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신약논단』 19:4 (2012), 1103-1140.

- 정용택, “비극과 구원을 변주하는 새로운 신학의 내러티브를 위하여”, 『제3시대』 19 (2011), 15-22.
- 정창욱,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5 (2014), 195-217.
- 정호영,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나타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대립 양상”, 『영어영문학연구』 31:3 (2005), 57-72.
- 조혜경, “기억, 상상, 이성의 비극: 폴스포이의 『악마』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24:1 (2012), 163-183.
- 진중권, 『미학 에세이』, 서울: 씨네21북스, 2013.
- 필립 노스, “성서에 있어 번역의 개척자들과 매체: 예술과 동시대 매체를 통한 청중 끌어들이기”, 정창욱 역, 『성경원문연구』 20 (2007), 238-252.
- 홍인규, “로마서 안에 나타난 하마르티아”, 『신약연구』 3 (2004), 143-178.
- Aeschylus, 『오레스테이아』, 두행숙 역, 서울: 열린책들, 2012.
- Aeschylus, Sophocles, and Euripides, 『그리스 비극 걸작선』,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0.
- Aristoteles, 『시학』, 천병희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2.
- von Balthasar, Hans Urs,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Vols. 1-5., G. Harrison, trans., San Fransico: Ignatius Press, 1982-1991.
- Bartholomew, Craig G. and Goheen, Michael W., 『성경은 드라마다』, 김명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 Freud, S., Hall, C. S., and Osborn, R., 『프로이트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서울: 선영사, 2014.
- Hesiodos, 『신통기』, 천병희 역, 서울: 한길사, 2004.
- Thiselton, A. C., 『성경해석학 개론』, 김동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Tolkien, J. R. R. and Tolkien, C. R., 『실마릴리온』, 김보원 역, 서울: 씨앗을 뿌리는사람, 2004.
- Vanhoozer, K.,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김재영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출판부, 2003.
- Vanhoozer, K.,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Words of Human Existence
in the Bible and the Greek Tragedy:
Focused on ὑβρις (*hubris*), ἁμαρτία (*hamartia*), θάνατος (*thanatos*),
φόβος (*phobos*)**

Hyung Chul Park
(Chung-pa Dong Church)

This paper examines four Greek words (*hubris-hamartia-thanatos-phobos*) for human existence in the Bible and the Greek tragedy. While the Bible says that a man is subject to death because of sin, a tragic hero in Greek tragedy dies because of his *hamartia*. Both perspectives commonly show that human beings live in fear of predestined death. This study aims at re-explaining human existence with four words that a human being is subjected to *thanatos* because of *hubris/hamartia* and he lives his life in *phobos*.

After comparing, analyzing and synthesizing four Greek words in the Bible and the Greek tragedy, I have tried to reconstruct and reinterpret them. In due course, human existence will be explained within the intertextuality between the Bible and the Greek tragedy. And this could provide a new approach in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the Bible. Besides these four Greek words, this paper also looks for other words in the Greek tragedy that are related to human life and existence in the Bible. By comparing and applying their meaning, this study will enlighten and suggest new approaches to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how humans are portrayed in the Bible. This study could also suggest new possibilities of rethinking the notion of salvation of human existence not only in the Bible but also in the Greek tragedy. I hope that this study might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horizon of the biblical text in its exploration of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the Bible and the Greek tragedy.